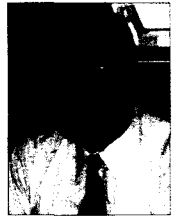


# 애완동물의 종류 및 특징

그 첫 번째 이야기 ... 진도견



글 | 박수영 사무처장(대한수의사회)

최근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애완동물(Pet Animal)을 키우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애완동물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마리수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등 고도사회의 여유와 풍요의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이보다는 가족구조의 변화, 단절된 사회 생활 등 자기 중심적인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감을 반증하기도 한다.

애완동물은 개, 고양이, 새 등과 같이 사람과 가까운 귀여운 소동물을 일컫고 있으나 그 외에 물고기, 파충류, 원숭이, 돼지, 햄스터 등 취향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중 오랫동안 인간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로 살아왔고 충성스럽고 귀여워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개부터 소개하고자 한다.

## 개의 품종 분류

약 150~330여종으로 분류되는 개의 품종은 각

나라와 단체마다 약간씩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공식등록품종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세계축견연맹(Federation Cynologique Internationale), 영국 애견협회(Kennel Club), 미국애견협회(American Kennel Club)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개의 품종을 분류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돗개가 모든 국가와 단체로부터 국제적 기준의 품종으로 등록되어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국견인 진돗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 진도견

1962년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진도개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견으로서 현재 국제적 품종으로의 인정을 획득해 나가는 단계로 진도개를 외국에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시도 되고 있다.

진돗개는 다른 개에 비해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불가사의할 정도의 귀기본능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강한 경계성과 충성심으로 주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는 등 사회성이 약하기는 하지만 자견시부터 적절한 훈련과 배려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 1. 성격

진돗개는 다른 개에 비해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불가사의 할 정도의 귀기본능을 소유하여 이미 모 컴퓨터회사 광고에 나왔듯 300km나 떨어진 대전에서 옛 주인을 찾아 진도까지 돌아온 일화는 이러한 진돗개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또한 용맹성과 대담성, 끈질긴 승부근성 등으로 천부적인 수렵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경계성을 소유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진돗개는 다른 개들과 달리 어릴 적부터 특별한 훈련이 없어도 대소변을 가리고 자신을 청결히 관리하는 천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강한 경계성과 충성심으로 다른 동물이나 주인이외의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사회성이 약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는 양육자가 자견시부터 적절한 훈련과 배려를 해준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고 사양관리시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이다.

### 2. 외형

진돗개의 표준체형에 대하여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나 국가기관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진도군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외형을 평가하면 암수의 구별이 뚜렷하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힌 중형견으로

서 민첩한 모습을 하고 있고 성견의 경우 수컷은 48~53cm, 암컷은 45~50cm 정도의 체고로 안면을 바로 보면 대략 8각형으로 생겼고 주둥이까지 합친 안면 전체는 삼각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귀는 삼각형이고 간혹 큰 것도 있으나 작은 것이 원칙이며 앞으로 기울어지게 붙어있다. 청력이 예민하며 날썰게 보인다.

양 눈은 떨어지지 않고 가깝게 붙어있고 눈은 삼각형에 가까우며 눈꼬리가 위로 당긴듯 하다. 눈동자는 털색과 관계있어 한마디로 무슨 색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농갈색이나 순백묘의 개는 회색이 많다. 몸에 알맞게 굵고 힘 있게 올려지고 (선꼬리, 말린꼬리) 길이는 정강이까지 닿는 것이 일반적이고 걸음걸이와 뛰는 모습은 자연스러우며 뒤에서 볼 때 앞다리와 직선이고, 옆에서 볼 때 등이 곧은 모습이다.

품종을 가름하는데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모색은 황구 또는 백구를 원칙으로 하나 적구, 흑구, 호구 등 화려한 털색을 하고 있는 진돗개도 인정되어지고 있다. ⑤

〈다음호에 계속〉

